

독서수업
지도안
교사용

초등학교 3학년

책을 읽고 생각을 넓혀요



허가람 글 | 조승연 그림 | 웅진주니어 | 88쪽

독서수업 주안점

- 읽기 경험과 느낌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태도 기르기
- 재미나 감동을 느끼며 작품을 즐겨 감상하는 태도 기르기
- 자신의 읽기 습관을 점검하며 스스로 작품을 찾아 읽는 태도 기르기
- 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을 바탕으로 하여 다른 사람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 작품에서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삶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태도 기르기

차시별 수업 계획 예시

단계	개요	차시	활동 내용	비고
1	독서 준비	1	책 읽기 계획 세우기 ·누구와 읽을지 정하기 ·읽을 책 정하기 ·책을 살펴보고 내용 예상하기 : 표지 ·책을 살펴보고 내용 예상하기 : 차례	학생 1인에 책이 1권씩 모두 있어야 함.
2	독서	2	책 읽기 방법을 정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책 읽기 ·읽기 방법 정하기 ·국어사전을 활용하며 책 읽기 *모둠 활동 ·경험과 관련지어 책 읽기 *발표	3차시 동안 책을 다 읽을 수 있도록 시간을 배분하기.
		3		
		4		
3	독서 후	5	생각 나누기 ·책 내용 간추리기 ·인상 깊은 장면 표현하기 *발표·감상 ·비슷한 점과 다른 점 찾기 *발표·감상	학생들에게 독후활동지를 나누어 주기.
		6	독후활동지 ·어휘력 기르기 ·독해력 기르기	
		7	독후활동지 ·독해력, 사고력 기르기1 *발표·의견 나누기 ·독해력, 사고력 기르기2 *발표·의견 나누기	
		8	정리하기 ·독서 활동 돌아보기 *발표 ·더 찾아 읽기 *발표	

■ 교육과정 내용 요소

- 읽기 : 중심 생각 파악, 내용 간추리기, 경험과 느낌 나누기
- 쓰기 : 문단 쓰기, 쓰기에 대한 자신감
- 문학 : 인물-사건-배경, 작품에 대한 생각과 느낌 표현



독서 지도안





📖 누구와 읽을지 정하기

책을 누구와 읽을지 정해 봅시다.

책은 혼자서 읽을 수도 있고, 같은 책을 친구들과 함께 읽을 수도 있어요.

- ① 혼자 : 자신이 읽고 싶은 책을 골라 혼자서 읽어요.
- ② 짝 : 짝과 읽고 싶은 책을 골라 함께 읽어요.
- ③ 모둠 : 모둠 친구들과 의논해 읽고 싶은 책을 고르고 함께 읽어요.
- ④ 학급 : 책을 한 권 골라 반 친구들과 함께 읽어요.

- 혼자 읽으면 자유롭게 원하는 책을 고를 수 있어서 좋다.
- 반에서 모두 같은 책을 읽으면 읽고 나서 생각을 나누기 좋다.
- 학년에서 같은 책을 정해 읽으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 『땅속 괴물 몽테크리스토』를 누구와 읽기로 정했나요?

혼자 짝 모둠 학급

TIP 혼자서 볼 때는 내가 좋아하는 책을 고르면 돼요. 짝과 보려고 할 때는 짝이 좋아할 만한 책을 생각해 보고 추천하면 좋아요. 모둠 친구들과 읽을 때는 친구들과 이야기 나눌 만한 내용이 있는지 책을 미리 살펴보고 추천하는 게 좋아요. 학급에서 함께 읽을 때도 마찬가지로요. 인물, 배경, 사건 등 각 모둠별로 발표 내용을 나눠 맡은 후 그것 위주로 책을 읽고 발표하면 좀 더 깊이 있는 독후 활동을 할 수 있어요.

💡 『땅속 괴물 몽테크리스토』를 누구와 읽기로 정했는지, 그 이유를 각자 생각해보고 발표해 보도록 합니다.

- 혼자 : (예) 혼자 집중해서 이야기 속에 푹 빠져서 읽고 싶다.
- 짝 : (예) 짝과 함께 읽으면 읽은 부분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말할 수 있어 좋을 것 같다.
- 모둠 : (예) 이야기에 나오는 주인공과 등장인물의 역할을 나누어 맡아 연극하듯 읽으면 재미있을 것 같다.
- 학급 : (예) 반 전체가 같은 책을 읽는 것이니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큰 소리로 읽으면 모두 동시에 책 읽기가 끝나서 좋을 것 같다.

발표하기 지도 주안점

- 서로 다른 의견을 적극적으로 교환한다.
- 예의를 지키며 듣고 말하는 태도를 지닌다.

💡 『땅속 괴물 몽테크리스트』는 문학 영역에서도 특히 생활 동화, 창작 동화입니다.

다음과 같은 물음에 대하여 각자 답해보면서 이 책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①-1 심각한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친구가 있나요?

①-2 생활 동화의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 (예) 친근한 내용이라 이해하고 공감하기 쉽다.

② 『땅속 괴물 몽테크리스트』 책의 본문은 몇 쪽인가요? (88)쪽

· 페이지당 글의 양, 글과 그림의 비율, 전체 페이지를 살펴보게 합니다. ⇒ 적당함.

③ 책의 뒷표지에 쓰인 글을 읽고, 모르는 낱말을 옮겨 적은 뒤 세어 보게 합니다.

· 모르는 낱말이 어느 정도 포함된 책이 자신의 수준에 맞는 것인지 생각해 보게 합니다.



책의 표지를 살펴보고 내용 예상하기

제목과 살펴보면서 어떤 이야기일지 생각해요.
표지 그림을 보고 책의 내용을 예상해요.

TIP 표지는 책의 얼굴이에요. 표지에는 책 내용과 주제를 함축적으로 표현해 주는 그림과 제목이 들어가요. 간혹 제목을 좀 더 설명해 주는 부제가 들어가기도 하지요. 또 뭐가 있을까요? 책을 지은 작가, 그림을 그린 화가의 이름, 그리고 상을 받으면 뽐내고 싶듯이 책도 상을 받거나 추천 도서로 선정되었다면 표지에 드러내지요.

『땅속 괴물 몽테크리스토』 표지 탐색하기



※ 학생들 각자 갖고 있는 책 표지를 보면서 다음 물음에 답해 보도록 합니다.

1단계 표지에 나타난 요소 파악하기

제목 : 땅속 괴물 몽테크리스토

시리즈명 : 작은책마을

글쓴이 : 허가람 그린이 : 조승연

출판사 : 웅진주니어

2단계 ▶ 앞표지를 보고 책의 내용 예상하기

💡 책 제목 ‘땅속 괴물 몽테크리스토’를 보면, 어떤 이야기일 것 같은가요?

⇒ (예시답안) 땅속에서 살고 있는 괴물인 몽테크리스토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다.

💡 앞표지에 있는 그림은 어떤 모습인가요?

⇒ (예시답안) 카메라를 든 기자, 광부와 박사, 확성기를 든 할아버지, 탱크에 탄 장군 등이 땅을 흘리고 있고, 그 뒤에 도시의 땅속에서 올라온 검은 괴물이 입을 크게 벌리고 있다.

3단계 ▶ 뒤표지를 보고 책의 내용 구체적으로 예상하기

💡 갑자기 도시에 나타난 것은 무엇이고, 그 원인은 무엇인가요?

⇒ 엄청 커다란 지렁이들이 나타났고, 끔찍한 괴물을 피해 도망쳤다고 함

💡 ‘괴물 조사단’을 꾸려 괴물을 찾아 떠난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 침착한 시장님, 힘센 장군과 부하, 아는 척쟁이 박사, 최고의 광부 감감 아줌마, 어린이 기자인 잔디 등



책의 차례를 살펴보고 내용 예상하기

차례를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올지 알 수 있어요.

TIP 차례는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눈에 보여 줍니다. 또한 책을 본 후 내용이나 문장을 찾아볼 때도 도움을 주지요. 책을 읽기 전에 차례를 보면 어떤 내용들이 펼쳐질지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책에 대한 정보 없이 책을 골라 볼 때 표지나 차례, 작가의 말 등은 독자들에게 책에 대한 정보를 주어 책을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땅속 괴물 몽테크리스트』 차례 탐색하기

학생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책의 차례를 보면서 다음 물음에 답해 보도록 합니다.

※ 책의 뒷표지에서 읽은 내용을 생각하면서 그것과 인물, 상황 등을 연관 지어 생각하도록 이끌어 주세요.

책의 2~3쪽 차례입니다.

- | | |
|----------------------|---------------------|
| 1. 엄청 커다란 지렁이! ... 4 | 7. 멍청이들! ... 42 |
| 2. 어디로 대화를? ... 13 | 8. 무시무시한 대화 ... 49 |
| 3. 괴물 조사단 ... 22 | 9. 비밀 무기 ... 55 |
| 4. 깜깜한 땅속 ... 26 | 10. 간단한 문제군 ... 66 |
| 5. 냄새가 난대! ... 32 | 11. 엉망진창 도시! ... 72 |
| 6. 이상한 흔적들 ... 36 | 12. 괴물 산책 ... 78 |

💡 이 책은 몇 개의 차례로 구성되어 있나요?

⇒ 12개

💡 차례의 제목 중에서 이야기의 장소와 관련된 것을 말해봅시다.

⇒ 4. 깜깜한 땅속 / 11. 엉망진창 도시!

💡 차례의 제목 중에서 등장인물이 나타난 것을 말해봅시다.

⇒ 1. 엄청 커다란 지렁이! / 3. 괴물 조사단 / 7. 멍청이들! / 12 괴물 산책

💡 차례의 제목 중에서 가장 흥미를 끄는 것은 무엇이고, 그 이유를 말해봅시다.

⇒ (예) 7. 멍청이들! / 이유 : 누가 누구한테 '멍청이들'이라고 말했는지, 어떤 이유 때문에 '멍청이들'이라고 말했는지 궁금하다.

💡 이 책의 차례로 보아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 같은가요?

⇒ (예) 커다란 지렁이가 나타나자 여러 사람들이 조사단을 꾸려 땅속 괴물을 조사하면서 일어나는 사건이 전개될 것 같다.



📖 읽기 방법 정하기

어떤 방법으로 읽을까?

- 소리 내지 않고 혼자 읽기
- 친구와 번갈아 가며 읽기
- 선생님과 번갈아 가며 읽기
- 선생님이 읽어 주기
-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기

※ 혼자서 읽을 때, 친구나 선생님과 함께 한 문단씩 번갈아 가며 읽을 때, 선생님이 읽어 주는 것을 들을 때 각각 좋은 점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발표해 보도록 합니다.

TIP

책을 소리 내어 읽으면 더욱 생동감이 느껴져 책에 몰입이 될 수 있습니다.

📖 『땅속 괴물 몽테크리스토』 읽기 방법 정하기

읽기 방법	읽기 계획 세우기
소리 내지 않고 혼자 읽기	· 좋은 점 : 책의 내용에 몰입할 수 있다. · 주의할 점 : 지루하거나 잠이 올 수 있다.
친구와 번갈아 가며 읽기	· 몇 명이 함께 번갈아 가며 읽을 것인가? (짜꿍과 돌이/ 여럿이 모둠으로) · 무엇을 기준으로 번갈아 가며 읽을 것인가? (일정 분량씩 나누어 읽기/ 틀릴 때까지 읽기/ 대사를 나누어 읽기 등)
선생님과 번갈아 가며 읽기	· 선생님과 누가 번갈아 가며 읽을 것인지 정하기 · 무엇을 기준으로 번갈아 가며 읽을 것인지 정하기

선생님이 읽어 주기	· 좋은 점 : 또박또박하게 읽어 내용 전달이 정확히 될 수 있다. 선생님이 책 전체를 미리 읽어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읽어 주면 상황과 분위기에 꼭 맞게 읽을 수 있다. 학생들이 내용을 집중해서 듣고 이해할 수 있다.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기	· 연극처럼 배역을 정해서 읽기 · 가족에게 소리 내어 읽어주기 등

※ 이야기를 실감 나게 읽는 방법

- ① 이야기의 상황을 생각하여 인물의 마음이 어떠하였는지 알아봅니다.
↳ 이야기 속 인물의 말과 행동, 표정을 통하여 마음을 짐작하여 봅니다.
- ② 인물의 마음을 생각하여 어울리는 표정과 목소리로 인물의 말이나 생각을 읽습니다.
- ③ 이야기의 상황에 어울리는 몸짓을 하며 읽습니다.

※ 『땅속 괴물 몽테크리스토』 실감 나게 읽기

(예) 20쪽 “이 꼬맹이가 뭘 안다고 자꾸 끼어들어! 부관, 빨리 이 말썽쟁이를 끌어내!”

⇒ 화가 난 표정으로 상대방에게 욕박지르며 큰 목소리로 읽는다.

(예) 57쪽 “괴물이 진짜 화났나 봐요…….”

⇒ 잔뜩 겁을 먹고 울먹이는 목소리로 읽는다.



📖 국어사전을 활용하며 책 읽기

국어사전에서 낱말을 찾아가며 책을 읽어 봅시다.

- 읽으면서 모르는 낱말은 밑줄을 치거나 동그라미를 해 두었다가 2~4쪽 단위로, 또는 한 챕터(장)마다 표시한 낱말을 모아서 뜻을 찾고 정리해 두도록 합니다.

TIP 책을 보면서 모르는 낱말은 국어사전을 찾아보며 읽어 보세요. 책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어 보다 깊이 있는 독서를 할 수 있습니다.

📖 『땅속 괴물 몽테크리스트』 어휘 기록장 만들기

책을 읽으면서 모르는 낱말의 개수가 몇 개나 되었나요?

뜻을 알고 싶은 궁금한 낱말과 그 낱말이 나온 문장을 적고, 국어사전에서 낱말의 뜻을 찾아 써보세요.

의무	낱말	① 낱말이 나온 문장 / ② 낱말의 뜻
19쪽	음모	① “틀림없이 우리 도시를 차지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겁니다!” ② 뜻 : 나쁜 목적으로 몰래 흉악한 일을 꾸미. 또는 그런 꾀.
24쪽	폭동	① 게다가 경기가 중단되어 잔뜩 화가 난 야구장의 관중들이 언제 <u>폭동</u> 을 일으킬지 몰랐거든요. ② 뜻 : 내란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집단적 폭력 행위를 일으켜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일.

58쪽	총부리	① 검은 벽이 바깥 다가와 장군의 <u>총부리</u> 를 덮쳤어요. ② 뜻 : 총에서 총구멍이 있는 부분.
80쪽	의무	① 하지만 시민의 의무였기 때문에 다들 묵묵히 참고 산책을 했어요. ② 뜻 : 규범에 의하여 부과되는 부담이나 구속, 법적 의무도 그 위반에 대하여 형벌이나 강제력을 가한다는 데 특색이 있다.

모둠활동 모둠별로 각 사람이 조사한 내용을 모은 뒤, 중복되는 것을 제외하고 정리해 모음집을 만들어 봅니다.

- 낱말의 뜻을 조사하기 전과 뜻을 조사한 후에 그 낱말이 쓰인 문장의 뜻을 이해하는 정도가 달라졌는지 비교해 보도록 합니다.
- 낱말이 가진 여러 가지 뜻 중, 책 속 문장에서는 어떤 뜻으로 사용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경험과 관련지어 책 읽기

이야기 속 인물의 마음이 어떻게 짐작해 보고, 비슷한 경험이 있는지 생각해요.

TIP 책을 무조건 많이 읽는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해요. 사람들은 독서를 통해 여러 사람의 삶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독자는 책을 통해 얻은 경험을 내 경험에 비춰 나만의 방식으로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독서의 가치입니다.

📖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는 방법

- ① 어떤 상황인지 살펴봅니다.
- ② 인물의 마음이 드러나는 표현을 찾아봅니다.
- ③ 그림에 나타난 인물의 표정과 모습을 살펴봅니다.

📖 『땅속 괴물 몽테크리스토』를 자신의 경험과 관련지어 읽기

(예) 책의 20쪽~21쪽

“이 꼬맹이가 뭘 안다고 자꾸 끼어들어! 부관, 빨리 이 말썽쟁이를 끌어내!”

“잠깐, 이 아이의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그럼 땅속에 있다는 괴물을 없애 버립니다! 그러면 땅 위에 있는 괴물 녀석들도 돌아갈 거 아닙니까?” / 장군은 금방이라도 군대를 끌고 땅속으로 쳐들어갈 듯이 소리쳤어요. 잔디가 또 끼어들었어요.

“잠깐만요! 아직 어떤 괴물인지도 모르잖아요?”

그 말에 시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녀석, 아까부터 자꾸 방해를!”

장군이 무서운 얼굴로 다가와 잔디를 끌어내려고 했어요.

시장님이 막아서며 부드럽게 타일렀어요.

“장군, 모든 문제를 힘으로 해결하려는 건 좋지 못한 버릇이요. 이 아이의 말대로 먼저 조사단을 꾸려서 땅속 괴물에 대해 알아봅시다.”

어떤 장면인가요?

⇒ 장군이 잔디에게 자꾸 끼어들다며 땅속의 괴물을 없애 버리자고 소리치자 잔디가 또 끼어들어 아직 어떤 괴물인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자 장군이 무서운 얼굴로 다가와 아까부터 자꾸 방해했다며 잔디를 끌어내려고 했다. 이때 시장님이 모든 문제를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지 못한 버릇이라며 장군을 부드럽게 타이르는 장면이다.

비슷한 경험이 있나요?

(가이드) 어른들과 함께 있는 곳에서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가 어린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했거나 방해된다며 혼났던 경험을 말해 보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문제를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거나 그렇게 하려는 친구들을 봤던 경험을 말해 보게 합니다.

발표 책 속의 한 장면을 자유롭게 선택한 후, 비슷한 경험을 말해보도록 합니다.



📖 생각 나누기

읽은 책과 어울리는 활동을 하며 독서를 통해 얻은 간접 체험을 내 것으로 만들어요.

📖 책 내용 간추리기

- 책 한 권을 끝까지 읽고 나서 책의 내용을 간추려 봅시다.
- 설명하는 글은 문단의 중심 내용을 찾아서 간추리고, 이야기 글은 사건의 흐름에 따라 내용을 간추려 봐요.

TIP 책 내용을 간추려 쓸 때는 먼저 중심인물이 누구인지 생각하고, 큰 사건을 떠올려 보세요. 이후 생각나는 대로 줄거리를 정리한 후, 쓴 글을 찬찬히 읽어 보면서 다시 글을 다듬습니다.

📖 『땅속 괴물 몽테크리스트』에서 책 내용 간추리기

[책 내용 간추리기 지도법]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 중심 인물과 그 주변 인물들은 누구인가요?

⇒ 괴물(몽테크리스트), 지렁이 오웬, 잔디, 시장님, 장군, 아는 척쟁이 박사, 껌껌 아줌마 등

💡 이 책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생각나는 대로 꼽아 보세요.

- ① 괴물 조사단이 땅속으로 들어가 악취가 나고 끔찍한 독이 있는 괴물을 만나게 된 것
- ② 괴물이 인간들이 만든 쓰레기 더미에서 나왔다고 말하며 괴물 조사단과 싸우며 대립한 것
- ③ 잔디가 괴물의 억울한 일들에 대해 인터뷰를 했고, 땅 위의 도시로 괴물과 같이 올라온 것
- ④ 괴물을 피해 땅 밑에서 올라온 지렁이 오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으려고 한 것

⑤ 괴물 몽테크리스토가 작은 곰만 해졌고 악취가 나지 않자 시민들과 산책하면서 같이 살게 된 것

💡 위에서 꼽은 사건을 일어난 순서대로 정리해 보세요.

④ ⇨ ① ⇨ ② ⇨ ③ ⇨ ⑤

(가이드) 일어난 순서대로 사건을 정리하기 전에 꼭 들어가야 할 사건이 누락되었는지 점검합니다.

💡 위에서 정리한 순서대로 내용을 이어서 쓰고 글을 다듬어 완성합니다.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

- ① 대강의 내용 간추리기를 평가할 때에는 글에 나타난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기보다 자신의 말로 바꾸어 쓰도록 합니다.
- ②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나 행동이 드러나게 글을 쓰도록 합니다.
- ③ 쓰기에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글을 적극적으로 나누는 태도를 지니도록 합니다.



📖 생각 나누기

읽은 책과 어울리는 활동을 하며 독서를 통해 얻은 간접 체험을 내 것으로 만들어요.

📖 인상 깊은 장면 표현하기

-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과 그 까닭을 생각해 봅시다.
- 그리기, 인물 편지, 일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해 봅시다.

📖 『땅속 괴물 몽테크리스트』에서 인상 깊은 장면 표현하기

💡 인상 깊은 장면 표현하기

인상 깊은 장면	(예) 책의 49~51쪽 : 쓰레기 더미에서 만들어진 괴물이 자신을 더럽고 냄새난다고 혐오하는 인간들을 증오하고 저주한다고 말하는 장면
그 까닭	(예) 인간들이 땅속에 파묻어 버린 쓰레기 더미에서 만들어진 괴물이 도리어 인간들을 증오하고 저주한다는 점이 인간의 자업자득이었기 때문이다.

💡 인상 깊은 장면 그리기

(생략) 그림으로 자유롭게 표현하여 봅시다.

TIP 주요 사건이지만 책에 그림으로 나타나 있지 않은 장면이나 인물의 행동이나 심리가 변화한 장면 등을 그리면 좋아요. 글로 나타낼 때와 마찬가지로, 그림으로 그릴 때에도 인상 깊은 장면을 표현할 때는 인물, 사건, 배경이 잘 드러나도록 합니다.

『땅속 괴물 몽테크리스토』에서 인상 깊은 장면 그리기

(예) 책의 58~60쪽 : 장군이 괴물을 향해 방아쇠를 당기자 총알이 괴물의 몸으로 쑥 들어가더니 녹아 버렸고, 박사가 마취 주사기를 들고 괴물 가슴에 꽃자 주삿바늘이 힘없이 녹아 버린 장면을 두 등장인물이 괴물을 공격하는 모습으로 구성하여 그린다.

(가이드) 괴물이 검은 벽으로 괴물 조사단을 둘러싼 모습, 장군이 괴물을 향해 총으로 쏘았지만 총알이 녹아 버린 모습, 박사가 마취 주사기를 들고 달려들었지만 주삿바늘이 녹아 버린 모습 등이 잘 드러나도록 그립니다.

발표·감상 모둠별로 서로 돌려보며 다른 친구들이 표현한 것을 감상하기.



📖 생각 나누기

읽은 책과 어울리는 활동을 하며 독서를 통해 얻은 간접 체험을 내 것으로 만들어요.

📖 책 속 인물과 자신의 비슷한 점과 다른 점 찾기

- 동그라미 두 개를 일부분이 겹치도록 그립니다.
- 동그라미가 겹치는 곳에는 등장인물과 자신이 비슷한 점을 쓰고, 겹치지 않는 곳에는 등장인물과 자신을 비교해 다른 점을 씁니다.

📖 『땅속 괴물 몽테크리스토』를 읽고 책 속 인물과 자신의 비슷한 점과 다른 점 찾기

(예)	등장인물 : 강잔디	나
비슷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기심이 많고 모험을 좋아한다. • 책을 읽고 옛날 지구에 살던 동물들을 알고 있다. • 어른들끼리 이야기할 때에 끼어들어 말하기도 한다. • 차근차근 설명하기를 좋아하며, 문제가 생겼을 때에 좋은 방법을 제안하기도 한다. 	
다른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쟁이 신문의 어린이 기자이고 특종을 좋아한다. • 커다란 지렁이나 괴물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도, 앞으로도 기자가 되고 싶은 생각이 없다. • 지렁이는 싫어하고, 괴물이 나타난다면 무서워할 것 같다.

발표·감상 모둠별로 서로 돌려보며 다른 친구들이 표현한 것을 감상하기.



📖 어휘력 기르기

[복사하여 나누어줄 수 있는 학생용 활동지는 맨 뒤에 있습니다.]

💡 다음은 <땅속 괴물 몽테크리스트>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 (가) · “(② 특종)이다!” / 잔디는 칫솔을 던지고 달려 나갔어요.
 · “하지만 이렇게 큰 건 저도 처음……. 정확히 알려면 먼저 (⑤ 해부)를…….”
 · “잠깐, 이 아이의 말도 (① 일리)가 있어요.”
 · 깜깜 아줌마가 땅굴차 앞에 달린 (③ 전조등)을 켜어요.
 · “난 원래 (④ 축농증)이 심해서 냄새를 못 맡…….”
- (나) · 야구장도 ㉠난장판이 되었어요. 관중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어요. ㉡
 “괴물 지렁이가 나타났다!”
 순식간에 도시는 ㉢영망진창이 되어 버렸어요. ㉣

1) (가)의 각 빈칸에 들어가기에 알맞은 낱말을 아래에서 골라 번호를 쓰세요.

- ① 일리 : 어떤 면에서 그런대로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이치.
 ② 특종 : 어떤 특정한 신문사나 잡지사에서만 얻은 중요한 기사.
 ③ 전조등 : 기차나 자동차 따위의 앞에 단 등으로 앞을 비추는 데에 씀.
 ④ 축농증 : 몸속의 공간에 고름이 괴는 병으로 코결골 점막의 염증을 말함.
 ⑤ 해부 : 생물체의 일부나 전부를 갈라 해쳐 그 내부 구조와 각 부분 사이의 관련 및 병의 원인, 죽음의 원인 따위를 조사하는 일.

2) (나)의 ㉠~㉣의 뜻은 국어사전에서 찾은 것이다. 알맞게 짝을 지어 쓰시오.

- ㉠ 여러 사람이 어지러이 뒤섞여 떠들어 대거나 뒤엎켜 뒤죽박죽이 된 곳. 또는 그런 상태.
- ㉣ 일이나 사물이 헝클어져서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만큼 결단이나 거나 어수선한 상태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

(참고/가이드) ㉠ '난장판'과 ㉣ '엉망진창'은 소리는 서로 다르지만 그 뜻이 비슷한 말인 유의어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뜻이 비슷한 말로는 '각두기판', '난장', '난판', '엉망' 등이 있습니다.



📖 독해력 기르기

[복사하여 나누어줄 수 있는 학생용 활동지는 맨 뒤에 있습니다.]

💡 다음 <땅속 괴물 몽테크리스트>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천천히 바닥 문이 열리더니, 잔디가 얼굴을 내밀었어요.
 시장님은 깜짝 놀랐어요. / “아니, 네가 어떻게 여기 있는 거니?”
 장군은 화가 나서 방방 뛰었어요.
 “이 고집불통 꼬맹이, 여기까지 따라오다니! 당장 돌아가지 못해!”
 그러나 잔디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 “저도 꼭 괴물을 보고 싶다고요!”
 시장님은 난처했어요. / “이런 땅속에서 혼자 돌아가라고 할 수도 없고……. 깜깜 아줌마,
 다시 도시에 갔다 올 수 있을까요?”
 “어렵겠는데요. 이미 많이 내려와 버려서요. 다시 갔다 오면 너무 늦어질 거예요.”
 ⇨ 책의 29~31쪽입니다.

(나) “장군, 그게 무슨 소리요? 땅속 괴물의 냄새라도 난단 말이요?”
 “네,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지독한 악취는 처음입니다! 분명 그 끔찍한 괴물의 악취일 겁니다!” / 그러고는 몸을 부르르 떨며 중얼거렸어요.
 “악취만으로도 이렇게 위협적이라니 정말 무서운 괴물이군…….”
 다들 냄새를 맡아 보려고 코를 킁킁댔어요. 하지만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어요.
 잔디가 물었어요. / “나는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 장군님은 정말 냄새가 나세요?”
 ⇨ 책의 34쪽입니다.

1) 1) (가)~(나)에서 있었던 일을 정리한 것이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가) : 바닥에 숨어있던 잔디가 나타나자 **시장님**이 다시 **도시**에 갔다 올 수 있냐고 물었고, **깜깜 아줌마**는 이미 **땀**이 내려와서 어렵겠다고 말했다.



(나) : **장군**은 땅속 괴물의 지독한 **악취**를 맡고는 몸을 부르르 떨며 중얼거렸고, 다른 사람들은 **코**를 킁킁 냈지만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음.

2) (가)에서 ‘잔디’가 바닥에서 나타나자 ‘괴물 조사단’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쓰시오.

⇒ 시장님은 깜짝 놀랐고, 장군은 화가 나서 방방 뛰었음.

(해설) ‘잔디’가 바닥 문에서 나타나자 괴물 조사단은 깜짝 놀랐고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 독해력, 사고력 기르기 1

[복사하여 나누어줄 수 있는 학생용 활동지는 맨 뒤에 있습니다.]

💡 다음 <땅속 괴물 몽테크리스트>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장군이 잔디를 옆으로 밀쳤어요. / “꼬맹아, 어른들끼리 중요한 이야기 하는 중이니까 저리 비켜!” / 갑자기 잔디가 연필을 내밀며 질문했어요.

“어린이법 1조 3항을 아십니까?” / “그게 뭘데?” / 장군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모든 어린이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 잔디가 큰 소리로 알려 줬어요.

장군이 벌떡 화를 냈어요. / “진실? 애들이 그런 거 알아서 뭐해!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지!” / “하지만…….” / “시끄러! 시장님께서 고민 중이신데 방해되잖아!” / 장군이 잔디 입을 막아 버렸어요.

⇒ 책의 10~11쪽입니다.

(나) 그때 잔디가 끼어들었어요. / “책에서 봤는데, 옛날 지구에 살던 곤충들은 아주 컸대요. 오음들도 멸종하지 않은 고대 지렁이의 후손일지 몰라요. 그리고 지렁이들은 어둡고 축축한 곳을 좋아하니까, 햇볕이 비치는 땅 위를 싫어한다는 말도 사실일 거예요.” / 박사도 아는 척 고개를 끄덕였어요. / 장군이 으박질렸어요.

“이 꼬맹이가 뭘 안다고 자꾸 끼어들어! 부관, 빨리 이 말썽쟁이를 끌어내!”

“잠깐, 이 아이의 말도 일리가 있어요.” / 시장님이 말했어요.

⇒ 책의 19~20쪽입니다.

- 1) 윗글에서 ‘장군’은 어린이 기자인 ‘잔디’에게 함부로 대하며 말하고 있다. 이러한 ‘장군’의 말과 행동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을 쓰시오.

발표·의견 나누기

⇒ (예시답안) 장군은 잔디를 옆으로 밀치며 비키라고 했고,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는 잔디에게 벌칙 화를 내며 입을 막았고, 자꾸 끼어든다며 끌어내라고 말했다. 장군이 어린이인 잔디에게 언어폭력을 하고, 입을 막는 폭력적인 행동을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참고/가이드) 언어폭력은 말로써 온갖 음담패설을 늘어놓거나 욕설, 헐박 따위를 하는 일을 말합니다. 장군이 잔디에게 화를 내며 험한 말을 하는 것은 일종의 언어폭력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합니다.

2) (나)에서 ‘잔디’는 땅 밑에서 올라온 ‘오움들’을 무엇이라고 생각했는지 쓰시오.

⇒ 멸종하지 않은 고대 지렁이의 후손



📖 독해력, 사고력 기르기 2

[복사하여 나누어줄 수 있는 학생용 활동지는 맨 뒤에 있습니다.]

1) 다음 <땅속 괴물 몽테크리스트>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시장님이 말했어요. / “물론 몽테크리스트 씨의 냄새가 견디기 힘든 것은 맞아요. 하지만 몽테크리스트 씨는 우리가 만들고 버린 쓰레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 시민들은 도시가 주는 이로움을 같이 누릴 권리도 있지만, 도시에 생긴 문제를 같이 책임질 의무도 있잖아요.” / 여전히 못마땅한 얼굴을 한 시민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시장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 책의 76쪽입니다.

(나) 몇 년이 지나자, 몽테크리스트는 작은 곰만 해졌어요. 여전히 초콜릿처럼 까만색이었지만, 이제 악취는 거의 나지 않았어요. 대신 열은 흠냄새가 날 뿐이었죠. 만져도 녹아내리는 일은 없었어요. 끈적이지는 했지만 맑고 투명한 액체가 조금 묻어나올 뿐이었죠. 달팽이를 만졌을 때처럼요.

그래서 몽테크리스트는 다시 자기 손으로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몽테크리스트는 다른 어떤 일보다 기뻐했지요. / 시민들은 조금씩 몽테크리스트와의 산책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몽테크리스트가 생각보다 유머 감각이 있고, 아는 것도 많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누구나 몽테크리스트와의 대화를 즐겨워했어요.

⇒ 책의 82~83쪽입니다.

2) (가)에서 ‘시장님’이 한 말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과 (나)에 나타난 ‘몽테크리스트’의 변화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쓰시오.

발표·의견 나누기

⇒ (예시답안) 우리가 만들고 버린 쓰레기인 몽테크리스토를 책임질 의무가 있다는 시장님의 말에 못마땅한 얼굴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몽테크리스토가 작은 꿈만 해져서 악취가 나지 않고, 자기 손으로 책을 읽고, 시민들과 즐겁게 대화해서 다행이다.

(참고/가이드) 시장님이 한 말에 여전히 못마땅한 얼굴을 한 시민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시장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는 반응을 중심으로 자신의 생각을 써 볼 수 있도록 합니다.

3) (가)에서 ‘시장님’이 ‘시민들’에게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말을 찾아 쓰시오.

⇒ 시민들은 도시가 주는 이로움을 같이 누릴 권리도 있지만, 도시에 생긴 문제를 같이 책임질 의무도 있음



📖 정리하기

다음 네 가지 질문에 대하여 매우 잘함, 잘함, 보통임의 3단계로 확인하도록 합니다.

- 자신에게 맞는 책을 정했나요?
- 자신의 경험과 관련지어 읽었나요?
- 책을 읽고 생각이나 느낌을 잘 말했나요?
- 정한 책을 끝까지 읽었나요?

📖 더 찾아 읽기

자신이 읽은 책과 관련이 있는 다른 책을 더 찾아 읽어 봐요.

- (예)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고 재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
- (예) 쓰레기와 환경오염을 다룬 내용의 동화책을 찾아봐야지.

📖 『땅속 괴물 몽테크리스토』와 관련 있는 다른 책 더 찾아 읽기

발표 <땅속 괴물 몽테크리스토>와 관련이 있는 책 중에서 친구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책을 발표하도록 하고, 그 중에서 각자 읽고 싶은 책을 세 권 골라 목록을 적도록 합니다.

💡 읽고 싶은 책 목록

※아래 책들은 '쓰레기와 환경오염'에 대한 동화책입니다.

순서	책 제목	글쓴이	출판사
1	인류만이 남기는 흔적, 쓰레기	박상곤	미래아이

2	고물상 할아버지와 쓰레기 특공대	김미애	스콜라
3	쓰레기 반장과 지렁이 박사	신기해	키위북스

발표 자신의 독서 습관을 돌아보고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의 3단계로 점검해 보도록 합니다. 이때 예전과 비교하여 달라진 부분이 있으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보도록 합니다.

독서 습관 기르기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서점이나 책이 많은 곳에 가면 기분이 좋다.			
새 책을 읽기 시작할 때 마음이 설렌다.			
읽은 책에 대해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			
내가 책 속의 등장인물이 된 것 같은 느낌으로 읽는다.			

마음 문화



어휘력 기르기

이름 :

💡 다음은 <망숙 괴물 몽테크리스토>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 (가) · “()이다!” / 잔디는 칫솔을 던지고 달려 나갔어요.
 · “하지만 이렇게 큰 건 저도 처음……. 정확히 알려면 먼저 ()를…….”
 · “잠깐, 이 아이의 말도 ()가 있어요.”
 · 깜깜 아줌마가 땅굴차 앞에 달린 ()을 췌어요.
 · “난 원래 ()이 심해서 냄새를 못 맡…….”
- (나) · 야구장도 ㉠난장판이 되었어요. 관중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어요.
 “괴물 지렁이가 나타났다!”
 순식간에 도시는 ㉡영망진창이 되어 버렸어요.

1) (가)의 빈칸에 알맞은 낱말을 아래에서 골라 번호를 순서대로 쓰시오.


- ① 일리 : 어떤 면에서 그런대로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이치.
- ② 특종 : 어떤 특정한 신문사나 잡지사에서만 얻은 중요한 기사.
- ③ 전조등 : 기차나 자동차 따위의 앞에 단 등으로 앞을 비추는 데에 씀.
- ④ 축농증 : 몸속의 공간에 고름이 고는 병으로 코결막 점막의 염증을 말함.
- ⑤ 해부 : 생물체의 일부나 전부를 갈라 헤쳐 그 내부 구조와 각 부분 사이의 관련 및 병의 원인, 죽음의 원인 따위를 조사하는 일.

2) (나)의 ㉠~㉡의 뜻을 국어사전에서 찾은 것이다. 알맞게 짝을 지어 쓰시오.

- ㉠ 여러 사람이 어지러이 뒤섞여 떠들어 대거나 뒤엉켜 뒤죽박죽이 된 곳. 또는 그런 상태.
- ㉡ 일이나 사물이 헝클어져서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만큼 결단이나 어수선한 상태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

독해력 기르기

이름 :

 다음 <땅속 괴물 몽테크리스트>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천천히 바다 문이 열리더니, 잔디가 얼굴을 내밀었어요.
 시장님은 깜짝 놀랐어요. / “아니, 네가 어떻게 여기 있는 거니?”
 장군은 화가 나서 방방 뛰었어요.
 “이 고집불통 꼬맹이, 여기까지 따라오다니! 당장 돌아가지 못해!”
 그러나 잔디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 “저도 꼭 괴물을 보고 싶다고요!”
 시장님은 난처했어요. / “이런 땅속에서 혼자 돌아가라고 할 수도 없고……. 껌껌 아줌마,
 다시 도시에 갔다 올 수 있을까요?”
 “어렵겠는데요. 이미 많이 내려와 버려서요. 다시 갔다 오면 너무 늦어질 거예요.”

(나) “장군, 그게 무슨 소리요? 땅속 괴물의 냄새라도 난단 말ियो?”
 “네,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지독한 악취는 처음입니다! 분명 그 끔찍한 괴물의 악취일 겁니다!” / 그러고는 몸을 부르르 떨며 중얼거렸어요.
 “악취만으로도 이렇게 위협적이라니 정말 무서운 괴물이군…….”
 다들 냄새를 맡아 보려고 코를 킁킁댔어요. 하지만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어요.
 잔디가 물었어요. / “나는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 장군님은 정말 냄새가 나세요?”

1) (가)~(나)에서 있었던 일을 정리한 것이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p>(가) : 바닥에 숨어있던 잔디가 나타나 자 <input type="text"/><input type="text"/><input type="text"/>이 다시 <input type="text"/><input type="text"/>에 갔다 올 수 있냐고 물었고, <input type="text"/><input type="text"/><input type="text"/><input type="text"/>는 이미 <input type="text"/><input type="text"/> 내려와서 어렵겠다고 말 했음.</p>	<p>↔</p>	<p>(나) : <input type="text"/><input type="text"/>은 땅속 괴물의 지독한 <input type="text"/><input type="text"/>를 맡고는 몸을 부르르 떨며 중 얼거렸고, 다른 사람들은 <input type="text"/>를 킁킁 났지만 아무 <input type="text"/><input type="text"/>도 나지 않았음.</p>
---	----------	--

2) (가)에서 ‘잔디’가 바닥에서 나타나자 ‘괴물 조사단’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쓰시오.

⇒

독해력, 사고력 기르기 1

이름 :

 다음 <땅속 괴물 몽테크리스트>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장군이 잔디를 옆으로 밀쳤어요. / “꼬맹아, 어른들끼리 중요한 이야기 하는 중이니까 저리 비켜!” / 갑자기 잔디가 연필을 내밀며 질문했어요.

“어린이법 1조 3항을 아십니까?” / “그게 뭔데?” / 장군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모든 어린이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 잔디가 큰 소리로 알려 줬어요.

장군이 벌컥 화를 냈어요. / “진실? 애들이 그런 거 알아서 뭐해!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지!” / “하지만…….” / “시끄러! 시장님께서 고민 중이신데 방해되잖아!” / 장군이 잔디 입을 막아 버렸어요.

(나) 그때 잔디가 끼어들었어요. / “책에서 봤는데, 옛날 지구에 살던 곤충들은 아주 컸대요. 오웬들도 멸종하지 않은 고대 지렁이의 후손일지 몰라요. 그리고 지렁이들은 어둡고 축축한 곳을 좋아하니까, 햇볕이 비치는 땅 위를 싫어한다는 말도 사실일 거예요.” / 박사도 아는 척 고개를 끄덕였어요. / 장군이 으박질렸어요.

“이 꼬맹이가 뭘 안다고 자꾸 끼어들어! 부관, 빨리 이 말썽쟁이를 끌어내!”

“잠깐, 이 아이의 말도 일리가 있어요.” / 시장님이 말했어요.

1) 윗글에서 ‘장군’은 어린이 기자인 ‘잔디’에게 함부로 대하며 말하고 있다. 이러한 ‘장군’의 말과 행동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을 쓰시오.

↳

2) (나)에서 ‘잔디’는 땅 밑에서 올라온 ‘오웬들’을 무엇이라고 생각했는지 쓰시오.

↳

독해력, 사고력 기르기 2

이름 :

1) 다음 <평속 괴물 몽테크리스트>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시장님이 말했어요. / “물론 몽테크리스트 씨의 냄새가 견디기 힘든 것은 맞아요. 하지만 몽테크리스트 씨는 우리가 만들고 버린 쓰레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 시민들은 도시가 주는 이로움을 같이 누릴 권리도 있지만, 도시에 생긴 문제를 같이 책임질 의무도 있잖아요.” / 여전히 못마땅한 얼굴을 한 시민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시장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 몇 년이 지나자, 몽테크리스트는 작은 곰만 해졌어요. 여전히 초콜릿처럼 까만색이었지만, 이제 악취는 거의 나지 않았어요. 대신 열은 흙냄새가 날 뿐이었죠. 만져도 녹아내리는 일은 없었어요. 끈적이기는 했지만 맑고 투명한 액체가 조금 묻어나올 뿐이었죠. 달팽이를 만졌을 때처럼요.

그래서 몽테크리스트는 다시 자기 손으로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몽테크리스트는 다른 어떤 일보다 기뻐했지요. / 시민들은 조금씩 몽테크리스트와의 산책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몽테크리스트가 생각보다 유머 감각이 있고, 아는 것도 많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누구나 몽테크리스트와의 대화를 즐겨워했어요.

1) (가)에서 ‘시장님’이 한 말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과 (나)에 나타난 ‘몽테크리스트’의 변화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쓰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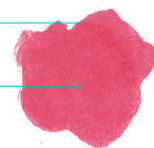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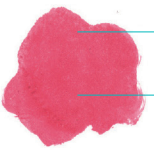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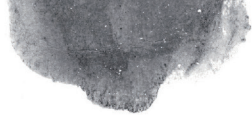
2) (가)에서 ‘시장님’이 ‘시민들’에게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말을 찾아 쓰시오.

⇨



A series of 20 horizontal blue lines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 providing a writing area.





A series of horizontal blue lines for writing, consisting of 20 evenly spaced lines across the page.

응진 **주니어**

값 9,000원



9 788901 204031

74800



ISBN 978-89-01-20403-1
ISBN 978-89-01-05987-7(세트)



KC 마크는 이 제품이
공통안전기준에 적합
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주의
책 모서리에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